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 개최

12일 예선… 19일 1부 · 2부 본선 경합

화순군은 '2025 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가 오는 19일 토요일 16시부터 화순 하니움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공정식 전국 가요제'는 가수 김용임의 '부초같은 인생', '적벽 가는 길' 등을 작곡한 화순 동면 출신 공정식 작곡가의 대중가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여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가요제이다.

4회째를 맞은 올해는 '2025 화순 봄꽃 축제 개막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전국 가요제는 오는 12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진행하는 예선을 거쳐, 19일 오후 4시부터 하니움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식전 행사와 1부, 오후 6시부터 2부 순으로 본선을 진행한다.

가요제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해 선정된 본선 진출자들의 경연 무대와 함께 김용임, 김용필, 신성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으로 관객들의 흥을 더욱 북돋울 예정이다.

이번 가요제 우승 대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공정식 작곡가가 손수 작곡한 신곡(1곡)을 부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인기상 30만 원과 화순11경 상 20만 원이 차례로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1일까지 이메일(king1004_@naver.com)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성, 전남체전 '이색 성화 봉송' 선보인다

장성군청 조정선수단, 필암서원 유림, 상무대 장병 '성화 봉송'

17일 백암산 국기단서 채화…18일 개막식 '성장장성' 반영 점화 행사

장성군이 제64회 전남체전(4월 18일~21일),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4월 30일~5월 2일)에서 '이색 성화 봉송'을 선보인다.

군은 먼저, 전국단위 조정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잘 알려진 장성호에서 '수상 봉송'을 펼친다. 장성군청 소속 조정선수들이 경기정을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성화를 봉송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는 선비 복장을 한 유림들이 성화와 깃발을 들고 경내를 걸으며 양대체전의 성공을 기원한다.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 상무대에선 장병들로 성화봉송단을 구성해 '상무정신'이 깃든 패기 넘치는 영내 봉송을 보여준다.

성화 채화와 점화 행사도 이목을 끈다. 장성군은 전남체전 개막식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오전 10시 백암산 국기단에서 성화를 채화한다. 부주자와 호위주자 8명으로 주자봉송단을 구성해 이색 성화봉송구간과 지역 내 11개 읍면 구간을 달리게 된다.

이튿날 오후 2시에는 황룡정원 무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예정된 주자들이 황룡강 꽃길을 따라 공설운동장(옐로우시티스타디움)으로 이동한다.

끝으로, 스타디움 내에서 이어지는 주자 봉송과 성화 점화 순서에서는 장성군의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의 정체성을 반영해 극적인 효과를 최고조로 높일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성화 봉송 행사에 지역적 특색을 녹여내 감동을 전할 방침"이라며 "장성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체육행사인 만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경찰서와 대행사, 읍면 관계자들과 함께 성화 봉송 전 구간을 사전 답사하는 등 체전 행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본격 추진

사업설명회 · 식재료 관리법 등 위생교육 진행

영광군은 2025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대상 마을 106개소의 마을대표와 조리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실시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식중독 예방법, 여름철 식재료 관리법 등 위생교육으로 진행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조리 및 급식 장소가 갖춰져 있고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중 25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공동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을별 24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105개 마을에 지원하여 마을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당초 78개소에서 106개소로 군비를 추가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바쁜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사라져가는 농촌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더욱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함평서 4·8만세운동 106주기 추모행사

24명 애국지사 구국 정신 · 역사 계승

함평군이 4·8 만세운동 106주기를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함평군은 9일 "4·8 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가 지난 8일 해보면 문장리 3·1만세탑 광장과 문장 장터 일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4·8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4월 8일 장날을 맞아 애국지사 24명이 함평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벌인 항일운동으로, 이후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이다.

행사는 106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평군이 주최하고 해보면 청년회가 주관해 마련했다. 앞서, 군은 7일에는 만세운동 발원지인 월야면 낙영재에서 재례행사를 하며 선열들의 넋을 위로했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김남용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해 애국지사 24명의 유족, 주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보면사무소에서부터 3·1만세탑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4·8 만세운동의 의의를 되새겼다.

특히, 관내 초·중·고등학생 400여 명이 해보면 청년회에서 제작한 굿즈 태극기 스카프를 휘날리면서 시가행진에 참여했으며 학생 대표 남녀 8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교육의 시간이 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두루마기와 갓을 착용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당시 일본 헌병 분소를 기습했던 장면을 재현하며 독립운동의 열기를 생생히 전달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조국을 위해 한 몸 바쳤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길 바란다"며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굳건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올해 광복8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일강김철기념관과 4.8만세운동기념관 일원에 무궁화 테마동산을 조성하고 있다. /함평=지대만 기자

장흥,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 본격 추진

목공코딩 · 뉴스포츠 · 트래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장흥군은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과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인프라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첫시작을 알린 프로그램은 지역특화사업인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1회기에는 15명이 참석하여 나만의 정리수납함을 제작하였고, 2회기에는 노벨문학도시 장흥 출신 작가 작품의 한 글귀를 목판에 새기는 우드버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뉴스포츠, 트래킹, 문화예술프로그램관람, 스포츠경기관람, 캠핑, 숲으로 떠나는 마음성장여행, 목공, 코딩, 함께 즐기는 청소년 축제, 장흥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활동, 장흥지역 내 문학특구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나 장흥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프로그램별 신청기간 상이)할 수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지원 힘쓸 것"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참석… 주민과 소통 나서

정철원 담양군수는 지난 8일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개최한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12개 읍면 회장과 간사, 담당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철원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담양군이 주민자치 실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발전토론회 개최 방안과 주민자치연합회의 대나무 축제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연합회 위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장성군-국립장성숲체원 '숲 체험 활성화' 힘 모은다

'치유 명소' 축령산 관광자원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과 국립장성숲체원이 축령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과 숲체원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축령산 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관광자원 연계사업 추진 △산림자원 활용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기타 사업에 필요한 교육·홍보활동 등이다. 협약을 통해 방장산 국립장성숲체원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축령산에서도 펼칠 수 있게 됐다.

장성 축령산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편백나무 조림지다. 총 4개의 등산코스와 하늘숲길 전망대, 구름다리, 금곡영화마을, 민박촌, 관광농원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주차장 확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비 사업인 축령산자연휴양림 조성과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편백숲 인근에서 천년 비자나무 숲 조성도 시작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치유관광 명소인 장성 축령산에 국립장성숲체원 프로그램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하게 됐다"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